

코스피지수	1965.69	↓	-3.50
코스닥지수	620.02	↑	+0.21
환율 (원·달러)	1215.60	↑	+4.8

비즈 프리즘 |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펫팸족 공략 나선 유통업체

반려동물 한복을 맞춰준다고?

반려동물 시장, 3조 원 돌파 예상
추석 맞이 한복 맞춤 서비스 인기
GS프레시, 펫 전용 용품 새벽배송

유통업체가 최근 주목받는 시장으로 떠오르는 ‘펫팸족’(Pet+Family,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 공략에 적극 나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 3322억 원에 이어 올해는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고객 특성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유통업체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압구정 갤러리아명품관은 추석 을 맞아 반려동물 편집매장 펫 버티크에서 반려동물 한복 맞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목둘레, 가슴둘레, 사이즈에 맞게 한복을 제작해준다. 20만 원 대로 주문량이 전년 대비 60% 늘었다는 게 한화 갤러리아 측 설명이다.

요즘 인기 트렌드인 새벽배송에도 반려동물 용품이 등장했다. GS리테일의



갤러리아명품관의 반려동물 한복 맞춤 서비스(왼쪽)와 매장에 반려동물을 입장을 허용한 서울 여의도 IFC몰. 유통업체가 ‘펫팸족’을 겨냥한 상품 및 서비스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선식품 온라인몰 GS프레시는 반려동물 스타트업 펫츠비와 손잡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반려동물 용품 6000여 개를 새벽배송하고 있다. 오후 9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전반에 걸쳐 ‘펫 프렌들리’ 정책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

서울 여의도 IFC몰, 스타필드 하남·고양 등 복합쇼핑몰은 매장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온라인몰 인터파크는 인공지능 기반 챗봇 특집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상담사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리빙·가구 업체 한샘은 8월 29일 열린 2019 가을·겨울 시즌 발표회



사진제공 | 한화 갤러리아·IFC몰

에서 신혼부부와 반려동물을 위한 모델 하우스를 제안했다. 거실에 반려동물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문을, 베란다에 물품 수납공간 등을 배치했다. 김윤희 한샘 디자인 실장은 “결혼 전 1인 가구 때부터 반려동물을 기르다가 결혼 후에도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유지하는 가구가 늘고 있는 것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정정목 기자 jjay@donga.com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E’와 마크 레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마케팅 부문 총괄 부사장. 사진제공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벤츠, 4세대 ‘더 뉴 GLE’ 국내 출시
완전 변경 모델…음성 컨트롤 탑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E(이하 벤츠 GLE)’를 3일 공식 출시했다. 1997년 M클래스라는 이름으로 탄생해 현재까지 200만대 이상 판매한 벤츠의 베스트셀링 SUV다.

새로워진 내외관 디자인을 적용하고, 휠 베이스를 80mm 늘려 더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했으며,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BUX를 탑재해 매력력을 더했다. 지능형 음성 컨트롤 시스템인 MBUX는 “안녕 벤츠?”라는 명령어로 활성화한 후 차량 내 온도 및 조명 조절, 라디오 및 음악 재생, 전화 걸기 및 받기, 문자 전송 등의 기능들을 작동시킬 수 있다.

MBUX를 통해 개인별 맞춤 설정도 가능하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계기판 디자인 및 중앙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할 수 있으며, 좌석 위치, 엠비언트 라이팅, 자주 듣는 라디오 주파수 등 원하는 설정을 저장해 자신의 프로필을 쉽게 불러낼 수 있다.

국내에는 GLE 450 4MATIC 가솔린 모델과 GLE 300d 4MATIC 디젤 모델을 먼저 선보인다. 더 뉴 GLE 450 4MATIC은 3.0리터 트윈-터보 차저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367마력과 최대 토크 51kg.m의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GLE 300 d 4MATIC은 최고 출력 245마력, 최대 토크 51.0kg.m의 성능이다. 가격은 GLE 300 d 4MATIC 9030만 원, GLE 450 4MATIC 1억1050만 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현대차 노사, 8년 만에 무분규 타결
7년 끌어온 임금체계 개선안도 합의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8년 만에 무분규로 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3일 전체 조합원 5만 105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해 4만3871명이 투표에 2만4743명(56.40%)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5월30일 임단협 상건례를 시작으로 8월 27일 교섭까지 22차에 걸쳐 협상을 버린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4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 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우리사주 15주) 등이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타결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양측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인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한 끝에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노사는 이번이 7년간 이어온 임금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전격 합의했다.

원성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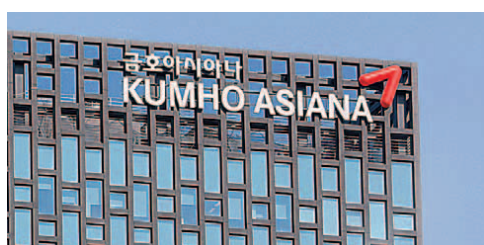
※ 교육·퍼즐은 11면에 옮겨 실었습니다

아시아나 새 주인 찾기…애경·미래에셋-현대산업·KCGI 3파전

SK·GS 등 대기업, 잠전 안한 듯
인수가 1조5000억~2조원 예상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사진)의 새 주인을 찾는 작업이 막을 올렸다. 금호산업과 매각주관사 크레디트위스(CS) 증권은 3일 오후 2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예비입찰을 마감했다.

입찰 참여기업은 금호산업과 CS증권 모



두 비공개라며 공식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지만 애경그룹,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 미래에셋대우-현대산업개발 등

3곳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 기대를 모으며 이름이 거론되던 GS, SK, CJ, 한화 의 대기업 그룹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감이 임박하면서 전격적으로 인수전에 뛰어드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극적인 상황은 없었다.

이로서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은 3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물론 입찰 참여 기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 예상

NHN, 클라우드 플랫폼 ‘토스트 워크플레이스’ 출시

두레이, 메일·업무·메신저 협업도구
국내 협업 플랫폼 20% 점유율 목표

NHN이 협업을 위한 플랫폼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NHN은 3일 경기도 판교 사옥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협업 플랫폼 ‘토스트 워크플레이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메일과 업무관리, 메신저를 통합한 두레이, 전자결재 및 게시판을 통합한 그룹웨어, 인사와 재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사적 자원관리(ERP)로 구성했다. 두레이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룹웨어와 ERP는 베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레이는 현재 HDC현대산업개발, 오코밸리, NS홈쇼핑, 엔드림, 인크루트, 우먼스톡 등 500여 기업이 업무시스템에 적용했다. 자료를 한 곳에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고 협업 상황에 맞춰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메일과 유사한 사용자환경(UI)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백창열 NHN 워크플레이스 개발센터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토스트 워크플레이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NHN

백창열 NHN 워크플레이스 개발센터장은 “업무, 메일, 메신저 내용의 실시간 번역까지 가능한 두레이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공공기관 등 온라인 협업이 필요한 어느 기업이나 도입 가능하다”며 “2021년까지 국내 협업 플랫폼 시장의 20% 점유율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한편 NHN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25인 이하 단체에 두레이를 무료 제공하고, 100인 이하 기업 고객에는 1년 동안 최대 90%까지 할인을 해준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은 개관 22주년을 맞아 뉴트로 감성을 테마로 한 ‘호텔 금수장’ 패키지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엠베서더 호텔 그룹의 전신인 금수장은 국내 최초의 민영 호텔로 1955년 개업했다.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은 엔틱한 소품들과 개화기 스타일 의복, 소품들을 활용해 객실을 뉴트로 감성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김재범 기자

80만 원대 5G폰 ‘갤럭시A90’ 4일 선배
삼성전자는 5G를 지원하는 80만 원대 스마트폰 갤럭시A90을 4일 국내 출시한다. 삼성 홈페이지와 전국 디지털프라자, 이동통신 3사 온오프라인 매장,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6.7인치 슈퍼 아몰레드 인피니티-U 디스플레이를 달았고 후

면에 4800만 화소의 기본, 123도 초광각, 심도 등 3개의 카메라를 적용했다. 갤럭시 스냅드래곤 855와 6GB 램, 128GB 내장 메모리, 4500mAh 배터리를 지녔다. 이 밖에 삼성 페이와 온스크린 지문 인식, 빅스비를 지원한다. 화이트와 블랙 2가지 색상으로 가격은 89만9800원이다.

김명근 기자